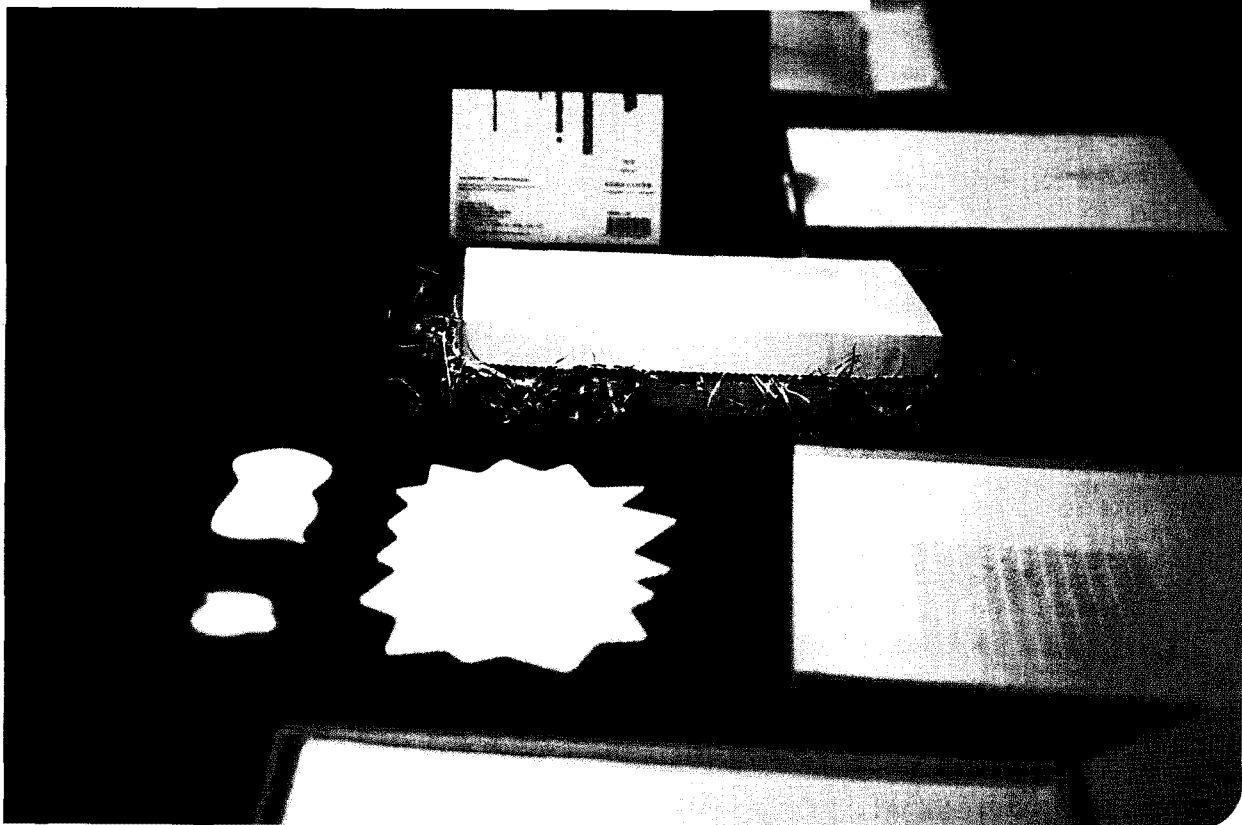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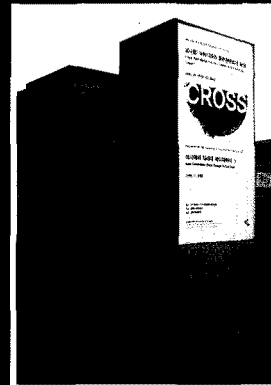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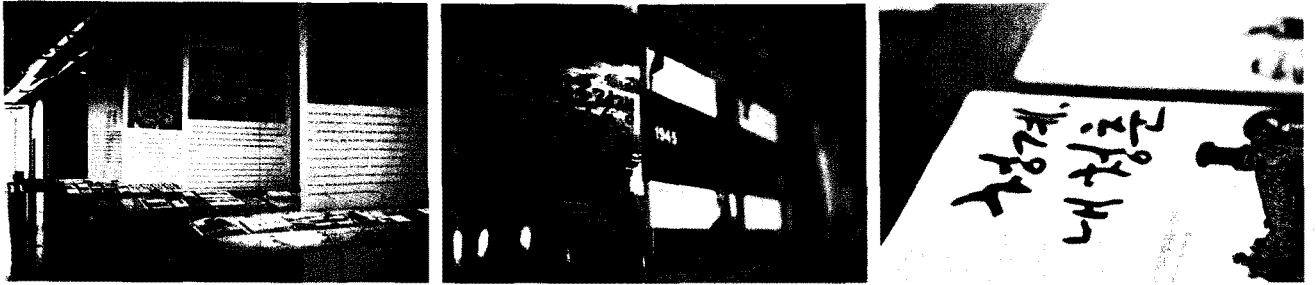


아시아 차세대 북디자이너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동아시아 책의 교류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1월 5일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0'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이상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백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심포지엄을 경청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아시아적 상상력: 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는 '아시아 차세대 북디자인2'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북디자이너들을 초청해 그들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기웅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과 정병규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0 코디네이터(정디자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매체중 하나인 책을 다루면서 디자인이 책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편집자들에게는 콘텐츠와 디자인의 합일점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고, 마케터에게는 출판마케팅의 훌륭한 적용사례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섹션에는 중국, 2섹션에는 일본, 3섹션은 한국으로 진행되었고, 각 섹션마다 2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했다.

1섹션에는 시아모 마거(Xiao Mage) Xiao Mage & Chengzi 스튜디오 공동 대표가 ‘디자인의 온도’에 대해, 양 린칭(Yang Linqing) NON-DESIGN 예술 감독이 ‘편집과 디자인 : 디지털 시대의 북디자이너’에 대해 발표했다.


양 린칭 예술 감독은 발제문에서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종이책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공존의 관계를 넘어 각자 이 가진 특유의 강점을 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섹션에는 신 아키야마(Shin Akiyama) 디자인 회사 Schtucco 대표가 ‘경험의 교란: 감지 않음을 위한 두 가지 시도’에 대해, 다이지로 오하라(Daijuro Ohara) 디자인 스튜디오 OMOMMA 아트디렉터 및 디자이너가 ‘인디펜던트 디자인과 출판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이지로 오하라 아트디렉터는 “어린 시절부터 순수하게 계속된 문자 쓰기와 편집에 대한 욕구부터 현재 디자이너로서 경험하고 있는 시각화 작업까지 공통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문자다. 책도, 포스터도 영상도,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는 말을 공간에 옮기는 장치이다. 문자는 인쇄되어 ‘읽는’ 것도, 의복에 프린트되어 ‘입는’ 것도, 그릇에 새겨져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문자가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동양이기에 가능한 사유의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3섹션에는 오피민 프리랜서 북디자이너가 ‘자동 기계와 상상력’에 대해, 조혁준 c-design 대표가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북디자이너’에 대해 발표했다.

오피민 북디자이너는 “책을 디자인하는 행위는 시와 같다고 생각한다. 기호들의 무수한 메타포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문자는 의미를 가진 이미지로 시각의 형태는 이성적인 소구로 타이포그래피는 증식되고, 이미지와 문자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점은 구조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새롭거나 간에 북디자인은 무수한 텍스트와 형태의 개념으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고

탄생시킨다. 북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이성이 빛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작업방식과 과정에서는 이상적이거나 감성적인 차이로 보이는 그것은 디자이너에 따라 소설적이기도 시적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표지를 디자인한 고종석의 ‘신성동맹과 함께 살기’, ‘도시의 기억’, 강준만의 ‘대한민국 소통법’, ‘인간사색’,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기록

동아시아 책의 교류와 함께 책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전시회가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파주출판도시 갤러리 지하향에서 열렸다. 그 내용과 시대를 대표하는 책들을 함께 소개했다.

• 역사를 아는 민족이라야 산다 지난 10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사는 가파른 레일로 이루어진 롤러코스터였다. 한국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근대 세계에 끌려갔으며, 한국 앞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극적인 한국근현대사는 또한 약동하는 한국사의 시작이기도 했다. 한국인은 세계의 가장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과 함께 피억압 민족들의 해방이라는 세계사적 과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갔다. 해방 후 한국은 다시 한 번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비극과 맞닥뜨렸으며 빈곤과 독재라는 제 3세계 공통의 난관에 빠졌다. 한국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闊闊히 걸어왔다.

•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과 동양평화의 길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것이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동양의 승리이며 일본은 평화의 사도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1879~1910)는 대한제국 침략에 박차를 가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고 일본이 동양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폭로했다.

• 4·19혁명 50주년과 민주화의 길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서양인의 혹평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 한국인은 부정 선거를 자행한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19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아시아 민주화의 성지로 우뚝 서게 된다.

• 국권피탈 100주년과 민족자존의 길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 한국인은 3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노예 신세로 굴러 떨어졌지만 동시에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를 청산하고 민족 간 평등과 평화를 이룩한다는 세계사적 과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갔다. 한국인은 나라 안팎에서 집요한 항일운동을 벌인 끝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세계만방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뿌리 깊은 일제 잔재를 극복하고 세계의 선두에 서서 민족자존의 능력을 안팎에 과시해 왔다.